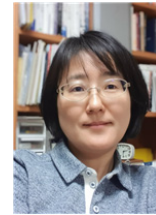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커타(Ekata)를 중심으로



양혜우 (경희대학교)
(skyhaewoo@daum.net)

국문요약

1990년대 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 같은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를 거점 삼아 공동체를 조직하며 자신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집회, 시위, 농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인정 투쟁을 벌였다. 특히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주노동자 농성과 투쟁을 이끌며 한국의 노동운동단체와 시민단체와 사회적 연결망을 넓혀갔다. 본 논문은 서울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맡았으며, 2003년 ‘강제추방반대,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단장을 맡아 활동을 했던 귀환 이주노동자 S의 귀환 후 사회운동에 관한 분석이다. S의 사례는 이동이 단선적이거나 순차적이라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며 이어가는 과정으로, 한국에서 형성한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귀국 후 노동자로 재현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토대를 둔 다층적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귀환 후 삶에 관한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네팔,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조,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 NGO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I. 여는 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2020년 약 2억 7천만 명이 고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억 6천 400만 명이 노동을 위해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IOM 2020년 보고서).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2000년에 비해 1억 2천 2백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가 하나의 세계 경제체제를 구성하면서 자본과 상품의 이동과 함께 사람의 이동을 발생시키고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경을 넘는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주 연구자 스티븐 카슬(Stephen Castles 2013, 29)은 국가 간 부의 불평등,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정치적 불안과 종족 간의 갈등, 인구 팽창과 실업, 새로운 자유 무역의 생성이 노동 이주를 촉진하고 있어서 이주의 시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중국교포와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이주노동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기보다 자본과 국가의 이익에 부응했기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는 갖추지 않고 관광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입국을 대거 허용하거나, 편법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하여 음성적, 불법적 노동시장을 양성해 왔다. 권리를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와 같은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를 거점 삼아 공동체를 조직하며 자신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 농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당사자들은 네팔 노동자들이었다. 네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 외에 산업연수제도 폐지 농성, 강제추방반대 농성, 노동조합 설립 운동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이끌었고, 한국의 노동운동단체와 시민단체에 지지와 연대를 촉구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넓혀갔다. 활동은 한국에서의 인정 투쟁뿐만 아니라 모국인 네팔에서도 이루어졌다. 입국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브로커의 횡포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네팔과 한국 양국의 공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가해자를 색출하고 책임을 물었다.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인력송출회사 룸비니를 퇴출한 것도 네팔공동체의 역할이 컸다. 모국의 노동조합총연맹(The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지펀드(GEFON T)¹⁾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네팔공동체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실태 및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노동조합과 UML(Unified Marxist

Leninst) 정당의 관심과 보호를 촉구하는 한편 자신들도 네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자 노동자임을 부각했다. 네팔 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조합 간부가 한국을 방문하여 네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요청한 것도 네팔공동체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네팔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할 것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으며, 소규모의 에스닉 공동체들은 고향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로나 수도를 건설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초국가적 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국가의 쇠퇴와 유연한 자본의 축적, 변화된 형태로 자본이 재구성되면서 송출국과 수용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점점 탈영토화(Glick Schiler et al. 1995)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물리적인 위치, 문화, 정체성으로 경계 지워진 사회학적 개념은 이주자의 초국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 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이주민은 유입국에 정착하여 살더라도 모국의 가족과 친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모국과 유입국 두 곳 모두와 연결된 일상적 생활 및 관계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주민은 뿌리 뽑힌 존재나 기존의 것을 버리고 멜팅 팻(melting pot) 속에 녹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중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내는 초국적 주체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초국적 공동체 연구이다.

네팔공동체와 유사한 초국적 사회운동은 한국 재외교포들의 활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일 제주인은 고향 마을에 일본 온주 감귤 묘목을 기증하여 감귤 생산 발전을 시도하고,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를 기증하는 한편 축산업과 양잠업 장려, 도로 건설, 장학금, 학교 설립,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자금을 기부해 왔다(고광명 2010, 226-228). 이를 통해 제주도의 친족 네트워크와 친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재미·재독 동포들의 활동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인회를 조직하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사회에 한국 군부독재의 전횡과 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체류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근에는 국제 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1) 네팔 노동조합 총연맹(GEFONT)은 1989년 7월 20일에 설립되었다. 네팔에는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GEFONT는 비밀리에 출범했다. GEFONT는 농업, 섬유와 의류, 카펫 산업, 교통, 호텔, 레스토랑 및 음식 공급, 관광, 인쇄, 자동차, 식품 생산, 양조장, 화학 및 금속 산업, 리샤를 망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약 40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소녀상을 설치하는 등의 반전 평화 운동을 벌이면서 초국적 사회운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초국적 운동은 국내 이주민 공동체에서도 나타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 필리핀에 끼인 존재(in-between)로서 한국과 필리핀에서 형성된 다층적인 정체성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하며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김정선 2013).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생존의 장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공동체를 조직하여 이를 대안적 home으로 여기고 필리핀인이라는 종족 정체성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참여하며 공적 자원을 동원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권리와 의무를 협상해 나가는 정치적 주체로 살아간다는 김정선의 분석(2013, 96-98)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포섭되거나 한국의 인구정책에 동원되는 수동적 존재로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초국적 공동체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유입국에 거주하면서 모국과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확장하는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모국으로 귀환한 이주민들이 과거 거주했던 목적국(한국)과 사회연결망을 유지하고, 사회자본을 활용하며 초국적 사회활동의 장을 넓혀가고 있는 운동에 관해 연구된 것은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를 손님 노동자로 여기고 사회문화 정치적 공간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간주해 온 것처럼 귀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석도 귀환과 함께 종료된 것이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쉬워지고 인터넷과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사회연결망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사회자본이 확장되기도 한다.

모국을 떠나 한국에 올 때 낯설고 두렵고 무서웠으나 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적 존재로 승인받고,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주노동자는 귀환과 동시에 다시 낯설고 공허하며 상실의 공간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뿌리뽑힘은 다시 새롭게 뿌리내리는 과정을 수반하는 삶의 연속성 안에 있으며, 한국에서 경험한 세계를 짊어지고 돌아간 네팔에서의 삶은 훨씬 더 구체적이며 공동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맡았고, 2003년 ‘강제추방 반대!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던 S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거론했듯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1992년부터 공동체를 설립하여 인권과 노동권 투쟁을 벌여왔고, 이주노동자 운동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중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S는 31일간의 단식투쟁과 강도 높은 농성을 하면서 한국은 물론 네팔

노동운동 진영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얻었다. 한국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S의 귀환 후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동이 단선적이거나 순차적이라기보다 나선형처럼 연결되며, 한국에서 형성한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귀국 후 노동자로 재현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다층적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S의 활동 하나만으로 이주운동에 참여했던 귀환 이주노동자의 삶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모두 비슷한 삶의 경로를 밟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운동의 경험이 귀환 후 자신의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을 제공하며, 한국에서 형성한 사회자본이 사회운동을 펼치는데 필요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운동, 지역 운동, 여성운동, 정치가로서의 행보를 걷는 이주노동자의 귀환 후 활동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09년 네팔을 방문하여, S를 포함하여 10명의 귀환 활동가들과 인터뷰한 것과 2014년 S가 활동하는 에커타 금융협동조합, 봉제공장을 방문하여 참여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현지 방문이 불가능해지면서 S와 2차례 온라인 인터뷰한 것을 종합하여 분석했다. 또한, 에커타 협동조합과 연대 활동을 하는 한국 해외지원 NGO 센터의 네팔 프로젝트 활동가와 네팔 노동조합총연맹 지펀드와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이주인권연대 전 대표, 이주여성인권연대 전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과 네팔의 활동을 교차적으로 진단하고자 했다.

II. 이주와 귀환

1. 이주

“한국을 떠날 때 많이 울었어요. 네팔에서 한국에 갈 때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많이 울었고, 다시 네팔로 돌아올 때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울었어요.”

- 협동조합 운동가이자 교장선생님인 귀환 이주노동자 G, 2009년 인터뷰.

초기 이민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주를 고향과 고국을 떠나 다른 사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자아가 뿌리 뽑히는 과정(Handlin 1973; Takaki 1993)으로 해석되었다. 네팔에 있을 때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서 많이 울었다는 한 이주노동자의

고백은 입에 맞는 음식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익숙한 도시와 거리, 친밀한 사람들을 떠나 낯설고 생경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을 간명하게 표현해 준다. 자국에서의 모든 익숙함과 친숙한 관행들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낯선 거리와 지리를 익혀야 하며, 고된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낯선 곳에서 새롭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다.²⁾

그러나 결혼이주민이나 중국교포와 달리 영주권이 허락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잠시 머무는 손님 노동자로 인식됐다. 노동력 순환 원칙에 의해서 로테이션 되는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이동산과 관광지 같은 곳을 여행하고, 쇼핑센터나 시장에서 소비하는 사적 경험들은 누릴 수 있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공적 영역에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삶은 공장이라는 협소한 공간 안에 국한되었고, 노동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했으므로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뿌리 뽑힘이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가,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이중언어 강사, 사회통합 관련 강사와 같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장려하고 주민자치협의회, 마을 만들기, 마을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안산시, 부천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시정 모니터링 단,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며 이주민을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삼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통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법체류 예방 및 합동 순찰, 합동 단속, 산업안전 보건교육, 노동상담 등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미등록자로 남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 노동자에 불과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시민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에서 번 돈을 자본 삼아 자국에서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조건을 창출해 낼 것이라는 코리안 드림을 부추기며 한국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욕구를

2) 이주는 새로운 출발이나 도약의 계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도 함께 동반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무런 사회연결망을 갖지 못한 1990년대 초의 이주노동자들은 이주에 대한 설렘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컸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마중 나오기로 했던 브로커는 나오지 않았고, 무작정 이태원으로 가서 자국민같이 생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일자리를 찾았다거나, 수중에 가진 돈을 택시비도 다 써버려서 갈 곳이 없어 전화부스에서 밤을 새웠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은 이주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이주민이 겪는 뿌리뽑힘의 과정과 유사하다.

억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공적인 영역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며 ‘우리도 여기에 당신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했던 소위 이주노동자 운동가들이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조직화한 힘으로 시민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며 인정투쟁을 벌여왔다. 한 네팔공동체 대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참 신나고 좋았다고 회상한다.

“내가 회장 되었을 때 어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거기 가고, 경찰들하고 얘기하고, 농성도 하고, 신문도 만들고, 네팔 가수를 불러서 축제도 열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랑 모임도 하고, 수원, 성남, 부천, 안산에 있는 상담소들을 다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 다이(형) 다이(형)하고 그때는 잠도 잘 안 잤어요.”

- 협동조합 운동가이자 교장 선생님인 귀환 이주노동자 G, 2009년 인터뷰.

그들의 한국 생활 회고담은 온통 네팔 노동자를 위한 공적이며 사회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다. 또 다른 활동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 농성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호텔노조, 금속노조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과 함께하며 동료 노동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이주노동자 운동가들은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를 경험하며 공적인 기관과 협상하고 사회자본을 구축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해 온 것을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2. 귀환

준비된 귀환이든, 준비되지 않은 귀환이든 다시 자국으로의 귀환은 그동안 한국에서 뿌리내린 삶이 다시 뿌리 뽑히는 과정이었다. 모국으로의 귀환은 이주국에서 갖지 못했던 법적인 시민권을 회복하고 정치적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귀속의 과정이지만, 한국과 같은 활동의 현장이 없는 모국은 사회적 삶이 상실되는 곳이었다. 한국에서 대표로, 위원장으로, 단장으로 호명되었다면 귀환 후에는 그저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수없이 많은 귀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에 불과해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매일 한국 사람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인터넷에서 한국뉴스만 검색했어요”, “한국에서는 동지로 많은 사람과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 다큐멘터리제작, 농성에 참여한 귀환이주노동자 J, 2009년 인터뷰.

그의 말 속에서 공적이며 사회적인 삶을 상실한 공허함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의 재정착은 이주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십수 년을 떨어져 살다가 돌아온 집은 안락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한 곳일 때가 많았다. 어릴 때 두고 온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 더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돌봄을 요구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부재의 시간을 메워 줄 공통의 기억과 감정을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변화된 사회, 낙후된 정치, 비위생적인 환경, 무질서한 교통 등도 거슬리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 경제적인 행위를 둘러싼 사회적 삶과 공간 모두가 상실되는 일이다. 이주노동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은 대가족의 생계를 꾸리거나 겨우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가족들의 씹씹이는 너무 커졌다. 가족의 경제적 욕구를 채울 수 없게 되면 다시 이주노동을 떠나게 된다. 귀환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내 연구들도 귀환 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불연속적인 실업을 경험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어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길을 모색하거나 제3국행(채수홍 2007; 한건수 2004; 박정석 2015)을 꿈꾸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고 한다. 국제이주기구(IOM)와 이주노동자 상담단체, 산업안전관리공단, 지자체 안산외국인지원센터 등이 귀국 후 창업을 위해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반, 컴퓨터 자격증반,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정보화 강사 양성과정, 자동차 정비, 이·미용, 컴퓨터 조립 및 응용 S/W 활용, 카메라와 같은 미디어 기술과 언어 교육(윤은경 2015, 101-105)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귀환 후 정착을 돕는 것도 이주의 연쇄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귀환 후 재정착은 목적국뿐만 아니라 이미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귀환 이주활동가들도 관심을 두는 주제이다. 네팔의 경우 십여 년간 무장 투쟁을 벌였던 마오주의 공산당이 2006년 내전을 정리하고 의회 정치에 합류하면서 사회는 점차 정치적 안정을 찾아갔다. 많은 네팔 시민들은 민주 공화정으로의 전환과 제헌의회를 통한 새 판짜기에 관심갖고 과도기적 상황이 민주적으로 극복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인구의 20%가 넘는 사람이 이주노동을 떠나면서 네팔 사회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흘렀고, 이는 시민사회의 약화로 이어져 실질적 개혁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일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재정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신생민주공화국 네팔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와 같은 돌아온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가 잘되면 그때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와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게 하는 것……. 이제 우리나라에 가자.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서 뭘 좀 하자’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 S, 2009년 인터뷰.

일부 귀환 이주활동가들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목격하면서 나도 우리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키웠다. 전쟁의 폐허와 해외 원조경제, 30년의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과 동시에 세계 12~13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한국은 저개발국가 국민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자 본보기였다.

이방인은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 정주를 시도하지만 원래 그가 출발했던 곳의 문화를 버리지도 못하고, 정착 사회의 문화로도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두 문화가 혼재되고 섞여진 접경지대에 살아가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용일 2009, 321)로 해석된다. 명동성당 거리에서 인간의 권리를 외치고, 수많은 시민과 언론, 방문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인간임을 증명하려 했던 귀환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모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불합리한 정치적 관행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못한다. 과거 쉽게 눈감아 버렸던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나 낮은 시민 의식도 일상에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제 모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귀환 이전과는 다르다. 그럼 이주노동자로 살아왔던 경험과 정체성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Ⅲ. 초국적 노동운동

1. 노동자 정체성의 형성과 인정 투쟁

S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이다. 칼리지를 졸업한 후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그의 나이 스무 살이었다.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의 절반을 송출회사가 가져가는 것을 보고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한 후 양계, 도금공장을 전전하며 일하다가 IMF 때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신문 배달을 하던 중 무릎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S는 신문 보급소로부터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커뮤니티나 노동운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남의 나라에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나라로 돌아가야지,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데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게 당시 그의 생각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월급을 받지 못해 고생하다가 네팔공동체를 알게 되어 도움을 받았고, 성공회대학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어떻게 식민지와 전쟁, 군부독재를 이겨내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는지 배운 후 고무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들으면서 투쟁 없이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저는 정치의식도 없었고 그냥 돈 벌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을 벌어서 공부하려고요.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전태일의 분신 항거 투쟁을 들으며 ‘내가 아닌 우리 노동자’라는 외침에 전율을 느꼈다. 그 후 2002년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산하의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가입하여 고용허가제 제정을 반대하는 농성을 했고,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후에는 사면에서 제외된 약 18만 명의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강제추방반대 전원 합법화’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의 단장을 맡았다. 농성 중 잠복해 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연행되어 보호소에 갇히자 31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추방되었다.

2.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네팔 노동조합총연맹 지펀드의 활동

강제추방 된 후 그는 네팔 공산당 산하의 노동조합총연맹인 지펀드 활동에 참여했다. ‘모든 이주자는 하나의 세계를 통째로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네그리(Antonio Negri)의 표현처럼 한국에서 경험한 세계를 짊어지고 네팔로 돌아왔다. 한국으로부터 짊어지고 온 세계를 펼쳐 놓은 곳은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 지펀드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처음부터 귀환 이주노동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지펀드 간부는 “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오면 다시는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는 노동자로 권리나 투쟁에 참여하지 않아요”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을 떠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을 떠나면서 조직력과 운동력이 약화되고, 이주노동을 마친 후 다시 투쟁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공백이 컸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지펀드에게 이주노동자 보호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국제 연대를 끌어낸 것은 한국에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이었고 S의 헌신적인 노력이 가장 컸다.

물론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해외 노동인구가 400만 명에 이르고 송출 비리와 목적국에서의 빈번한 노동 착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자 노동조합도 더는 이주노동의 문제를 간과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과 농성을 이끌었던 그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삶 자체가 생생한 교육자료가 됐다. 그는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에게 출국 전 주의사항과 노동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 문제 발생 시 처리 방법, 송금과 저축계획 등 이주에 관한 전 과정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한 귀환을 위해 목적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조직에 가입하고 반드시 목적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노동조합 조합원 중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적국의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없으면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것’을 독려했다. 조직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은 그가 공들여 진행한 교육이었다. 한국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고 투쟁했으며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경험담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조직화 된 노동조합이 드물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노동자가 많아서 조직 구성에 훈련을 받지 못한 예비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유용했다.

S는 조직을 구성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나라를 방문하여 네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지의 노동 실태와 조직 상황을 청취하며 모국의 노동조합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방문하여 한국의 민주노총처럼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타국의 노총에 책무를 부여하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말레이시아 노총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고,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의 노동조합과도 연대를 맺고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 S는 교육과 조직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운동에도 참여했다. 지펀드의 변호사들과 함께 ‘포린 액트(Foreign Act) 2007’을 만드는 일에 합류하여 민간 인력 송출회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주 단계에서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송출업체들의 업체 등록비를 50만 루피(한화 약 466만 원)에서 300만 루피(한화 약 2,800만 원)로 상향 조정하여 송출업체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적립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이주노동자로 피해를 본 자신과 동료의 경험을 반영한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또한, 피해를 수집 조사, 판결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심판위원회(김경학 2020, 82)를 만든 법률 지원 시스템 역시 정책개선의 큰 성과이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가 간 MOU를 체결하여 브로커의 개입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서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주요한 과제가 되지 못했다. 네팔 노동조합총연맹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도 말레이시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다 귀환한 노동자들이 대신 맡았다. 그는 끊임없이 해외로 떠나는 네팔 노동자의 행렬을 보면서 이주노동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주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주노동 없는 사회’를 위한 그의 고민은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협동조합 운동으로 옮겨갔다.

IV.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하여

1.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플랫폼으로; 에카타 신용협동조합

‘에카타(Ekata)’라는 뜻은 ‘우리’라는 뜻이다. 에카타의 창립자 S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크게 고무되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을, 우리 회사,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내집단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함축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집단적 동질성이 강한 사회는 내집단에 충성심을 강요하고 외집단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국가를 혈연 공동체로 상상하게 한다(장한업 2018)는 비판을 받지만, 카스트제도라는 계급의식 및 차별이 존재하고 60개가 넘는 민족이 서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갈등하고 있는 네팔 사회에 우리라는 단어는 비판적 시각마저도 부러운 요소였다. 네팔의 시민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S의 열망이 담긴 ‘우리’는 여럿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통제하며,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에카타 협동조합 운동으로 나타났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 공산당이 벌인 내전으로 인해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격변을 겪었다. 통행 금지와 파업, 폭동으로 인해 도시가 고립되고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의 1/3이 절대 빈곤선³⁾으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49%라는 살인적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네팔 정부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최대

55만 명의 청년을 해외에 파견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지리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계급을 위해 '이주 대출금'을 제공하면서 노동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Nepal Labor Migration Report 2020). 그 결과 2007년 400만 명이 해외로 이주노동을 떠났고 송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2011년 25억 400만 달러였던 송금액이 2018년, 2019년 87억 9,000만 달러로 늘어 네팔 국내 총생산량(GDP)의 25% 이상을 차지했고(Nepal Labor Migration Report 2020),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에는 GDP의 34%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한 네팔인들은 해외 노동을 통한 송금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목돈을 마련하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7년까지 29개 목적국에서 5,982명의 네팔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말레이시아⁴⁾에서만 423명이 '청장년 급사증후군'⁵⁾으로 사망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높은 기온으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위협을 받았다(Nav Raj Simkhada 2004, 798). 2014년 한 해 동안 카타르에서 151명의 노동자가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고(The Guardian) 한국에서도 20명이 넘는 네팔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이주노동으로 인한 생명 손실로 가족과 이웃의 고통은 해마다 증가했다.

그런데도 해외 송금은 빈곤을 줄이고 가계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 자본 생산비율을 증가시키는 열쇠로 여겨졌다. 특히 네팔 같이 신자유주의 이후 공적 개발원조(ODA) 기금이 점차 줄어든 상황에서 송금은 내생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동력이 됐다. 경제학자들도 송금이 소비나 주택 구매, 기타 투자에 활용되더라도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주장하며(Bhubanesh Pant 2004) 이주노동을 독려했다. 반면 송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도 있었다. 송금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소비와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되고 송금받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3) 2015년 세계은행은 절대 빈곤선을 하루 1.9달러(약 2,150원)로 정의했다.

4)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분야에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등록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50만 명의 네팔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건강해 보이고 병 증상이 전혀 없는 청장년들이 수면 중에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으나 사인을 밝힐 수 없을 때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1990년대 네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청장년 급사증후군' 사망 사건을 수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교통,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이 붕괴하여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만한 중소기업을 찾지 못한 자금은 생산 부문보다 토지나 주택 구매와 같은 위험이 적은 곳이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곧 지가와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 내수 산업의 위축(Binita Bhattarai 1995, 150)을 초래했고 다시 더 많은 사람을 해외 노동으로 내몰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돌아와 머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S는 이주노동과 해외 송금이 일정 정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를 인정하면서, 이를 다시 내생적 자원으로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았다. 한국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산업연수생 친구들,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만난 형, 이주노동을 다녀오거나 이주노동자 가족을 둔 친구와 친척 65명이 출자금을 내놓았다. 이주노동으로 더는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고, 노동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며 이주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공통이익 달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금융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다(구정옥 2020, 99). 네팔에서는 맹아 상태였던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전국에 약 3만 5천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조합원 수는 630만 명에 달한다. 신용협동조합은 25명의 조합원만 있으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비슷한 이념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모여 협동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경영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용정보를 얻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는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예비교육을 시행하면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에 관해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했다. 이주노동을 떠나기 전부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가정 경제의 지출 규모와 예상 가능한 저축액을 미리 책정하고 화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이주노동자는 귀환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커타는 이주노동자의 정기적인 송금을 재생산 비용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산업에 투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이주노동자는 귀환 후에 저축한 돈과 대출을 추가해 가게나 자영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더욱이 해외 노동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를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교류하며 사회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면 더는 이주노동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재정착을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신용협동조합은 애초 설립 목표와 달리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의 종착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송금을 생활비나 주거비용, 자녀들 사립학교 비용으로 지출하여 송금은 저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예전에는 5천

루피(약 46,400원) 월세로 살다가 돈이 들어오면서 1만 루피(약 93,000원)의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한 달 생활비로 1만 루피를 쓰다가 2만 루피, 3만 루피로, 송금액만큼 소비해 버렸다고 한다. 귀환 후 가족의 커진 소비 규모를 충당할 수 없다면 다시 해외 노동을 떠났고,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이 자리 잡는데 걸리는 4~5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이주노동을 떠났다. 취약한 사회연결망을 가진 이주노동자 혼자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 업무는 성공적이었다. 67명에서 시작한 조합원이 2020년 5천 명을 넘어섰다. 주 고객인 시장 상인들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마케터(marketer)들의 방문으로 그날그날 번 돈을 편하게 예치시킬 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호응이 높았다. 2018년 네팔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용협동조합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카트만두의 1,856개 신협을 700개로 통폐합하는 절차를 추진 중인데 에커타 신용조합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고 타 신용협동조합보다 1~2% 낮은 대출 이자율과 자본금으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네팔 사회에서 약한 사회연결망을 가졌던 귀환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 과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귀환 후 재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마이크로 크레딧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예치해서 귀환 후 재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이 좌절된 에커타는 여성의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다. 남성들이 이주노동을 떠나자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기회와 욕구가 커지면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요구하는 수요도 늘기 시작했다. 신협의 출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에커타의 주요 관심은 귀환 후 재정착이다. 만일 여성이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자영업이나 농업 활동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남편의 해외 송금을 저축한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남편이 돌아온 후에는 여성이 하는 사업을 함께 하거나 더 투자해서 이주노동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Gramin Bank)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총재가 시작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개인 차원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국가 차원에서는 수입, 투자 저축을 통해 국가 내에서 순환되는 현금의 흐름을 활성화하여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으며 자본주의가 낳은 빈곤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했고 네팔에서도 빈곤퇴치를 위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에커타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시작하여 2020년 1,200명의 여성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그라민 뱅크 모델을 따르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대출 담보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채무를 나누어지는 연대 보증제도이다. 구성원들이 대출금을 잘 갚으며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의도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 능력주의로 소외되고 개인화된 사회 시스템을 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에커타에서 처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신청한 사람들은 귀환 후 그가 일한 노동조합 지펀드의 여성 조합원들이다.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바구니로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망치로 벽돌을 깨고 그것을 다시 이겨 벽돌을 구워내는 일을 하다가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소와 말을 구매하여 운반의 수고를 덜었고 후에는 바닥 타일이나 대리석 가공하는 기계를 사들여 노동 생산성과 가치를 향상시켰다. S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수입을 가져다줬을 뿐만 아니라 잦은 근골격계 질환을 감소시켜 노동자 건강까지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장애, 죽음을 보아온 S에게 있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금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용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였다. 그 외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대출받은 여성들은 돼지 새끼나 병아리를 구입한 후 길러서 팔거나 조그만 밭을 빌려 채소를 재배하고 길거리에 노점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자립을 시도했다. 무엇보다 에커타의 목표대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주노동에서 돌아온 남편들이 여성의 일에 합류하여 다시 이주노동을 떠나지 않고 같이 네팔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했다. 처음엔 쭈뼛쭈뼛 말을 못하던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사항과 개선 사항,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사업을 이끌어 갔다⁶⁾. 에커타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모든 운영자와 참여자가

6)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성과가 크게 평가되고 있지만, 김주희(2020)에 따르면 아내에게 제공되는 대출은 연체가 발생하면 여성들에게 망신을 주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고 알려진다. 연체는 여성에게 ‘집요한 협박’으로도 작용하게 한다. 에커타가 극빈층보다 중 빈곤층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이유도 바로 대출금 상환 가능성 때문이다. 극빈층의 경우 재생산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사들이는 데 소비하여 자립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자립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면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과 반목을

여성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여성이고, 70%가 넘는 여성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도 에커타의 특징 중 하나이다⁷⁾.

여성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제공한다고 해서 당장 자립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팔 여성의 2/3가 문해 능력이 없으며 평생 교육이나 건강관리, 직업을 가져 본 경험이 없어서 대출을 제공한다고 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에커타가 실시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회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직업교육과 훈련을 요구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5천 명 정도의 소규모 신용협동조합에서 이들 여성을 위한 무상교육센터를 세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V. 아시아 빈곤 여성의 꿈을 잇는 한국 NGO 단체와 에커타와의 만남

1. 가난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센터 : 봉제 교실과 제과 제빵 교실

한국에서 이주운동에 참여했던 방글라데시 네팔 귀환 활동가들은 귀환 후에도 한국에서 쌓았던 신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들과 가정생활, 직업, 모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사회연결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현지에서 지역

일으켜 공동체 운동이 붕괴되는 동시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협동조합까지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S의 설명이다.

- 7) 교장 선생님인 귀환 이주노동자 G가 설립한 네팔 남부 바이와라 시의 신용협동조합도 조합장, 이사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을 이사로 영입하자고 제안했을 때 남성 이사들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G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집에 환자가 있고, 어느 집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으며, 누가 죽었는지 서로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여성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훨씬 공동체적 가치가 잘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여성 중심의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G와 S와 같이 여성에 대한 신뢰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교기관을 제외한 이주노동자 상담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 대부분 여성이 대표였고, S와 G가 농성에 참여하고 집회에 함께 했던 운동의 동지들도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었다. “(한국의) **누나 같은 네팔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면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 성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운동이나 사회운동. 교육운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 학교 설립, 장학금 지원, 지역개발 운동들을 추진했다. 사회자본은 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학비나 생활비, 한국어 학당 어학연수, 사업자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임스 콜만(James Coleman)은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관계가 사회자본이 된다고 주장하며, 만일 사람들 사이가 상호 불신인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다면 거래비용이 드는 반면 상호 신뢰와 호혜가 형성된 사람과 거래할 때는 정보 취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태도와 규범, 가치를 공유하므로 목적을 효율성 있게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에커타의 핵심 구성원인 S가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농성을 하면서 형성한 사회자본은 가난한 네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가부장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의 여성 NGO 단체의 요구에 부응했고 복잡한 서류나 신청서 없이 곧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었다. 많은 저개발국가의 NGO들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잘 정리된 서류만으로 사업을 포장하는 터라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신뢰가 검증되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S는 한국 NGO에게 있어서 더 없이 좋은 파트너였다.

아시아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의 NGO 센터와의 첫 사업은 여성들을 위한 봉제 교육이었다. 거의 모든 국제 NGO 단체들은 저개발국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봉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여성들이 가게를 차리거나 집에서든 비교적 쉽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봉제 교육은 총 10개월 코스로 6개월의 기본교육과 4개월의 고급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재봉틀 사용법과 다양한 박음질 방법, 지퍼 달기와 같은 기술을 배우고, 고급과정에서는 옷을 만드는 패턴기술과 재단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10개월 배운 기술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취업할 만큼의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웠고 기대했던 것만큼 창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계속된 연습과 실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쉽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에커타는 교육생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봉제공장을 설립했다. 교육생들은 전문 기술자의 지도를 받으며 옷 패턴을 만들고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다. 교육생들이 만든 상품은 로컬 상점에 판매하거나 가방이나 코르사주(corsage)와 같은 소품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만난 활동기들에게 납품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과 디자인을 향상하여 약 15%가 창업 중이다. 그러나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도와 중국의 값싼 의류품 수입과 선진국에서 버려진 옷들이 값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서 주문 제작 방식으로는 경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한다는 한국의 NGO 센터의 방침에 의해 봉제 교육은 중단되었고 현재 봉제공장

은 7~1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봉제 교육에 이어 2015년부터 제과 제빵 교육 과정이 다시 문을 열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점이 문을 열었고, 네팔 전통 음식 대신 빵을 먹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네팔에는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⁸⁾. 더욱이 해외 송금으로 가정의 씬씀이가 커져 생일이나 결혼식을 기념하여 케이크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제과 제빵 기술자가 부족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봉제 교육은 제빵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다. 교육은 총 9개월로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과정을 거친 후 성 평등 의식 교육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교육 워크숍이 3개월간 진행된다. 교육은 제과 제빵 실습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식변화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 NGO 센터가 주관했다. 제빵의 실무 능력과 재료 납품 방법, 재고관리, 회계 정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하기 위해 베이커리를 겸한 카페 2개소를 개점했다. 품질 향상을 위해 네팔의 5성급 호텔 제빵사를 청빙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제빵사를 파견하여 네팔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ILO와 협약을 맺은 전문가로부터 베이커리를 개점할 장소, 실내장식, 메뉴, 가격 책정 등을 자문받고 개점 후에는 물품 관리, 재고관리, 회계 관리, 판매, 서비스관리와 같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2020년 베이커리의 취·창업률은 50%에 이르며 이 중 9명이 개인 베이커리를 오픈했다.

2. 관점의 충돌

그러나 교육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 한국 NGO 센터와 에커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 NGO 단체는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들, 미혼모, 한부모 가족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극빈층 여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성단체에 의뢰하여 센터에 거주하거나 상담받는 여성을 추천받아 인터뷰하고 여성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했다.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교육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공간을 갖는 것이고, 취업과 창업이라는 경제적 자립을 꿈꾸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커타는 교육 이수 후 창업할 경제력이 있는 중위층 여성을 교육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창업하려면 적어도

8) 네팔에서는 달빳(Dal Bhat)이라는 녹두를 걸쭉하게 만든 수프와 밥과 카레, 채소 절임의 전통 음식을 주식으로 먹어왔다.

1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빈곤층 여성은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여성 개인의 경제적 자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견해다. 빈곤 여성의 역량 강화나 일자리 창출이 먼저냐의 대립이었다. 절충 지점을 찾아 빈곤층 여성과 중간층 여성을 반반 선발했지만, 사업 목표와 대상에 뚜렷한 균열이 나타난 지점이다.

한편 창업을 희망하면 총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은 한국 NGO 센터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200만 원은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금은 창업 1년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NGO 단체는 여성들이 편하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립하는 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2년 되는 해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설사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법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네팔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한다. 못 갚은 대출금은 한국 NGO 단체가 창업 기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상쇄할 수 있으니 에커타가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해석이다. 반면 에커타는 2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압박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더욱이 네팔에서는 해외 NGO 단체가 주는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므로 1년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상환하게 해야지 길게 말미를 준다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에커타의 설명이다.

가난한 네팔 여성을 위해 먼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인 활동가는 따뜻한 연민과 우애의 시선으로 네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눅 들고 상처받고 무시 받아 온 가난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팔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 사회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자립일 것이다. 반면 현지 활동가는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고 다그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S만의 생각은 아니다. 1994년 산업재해 농성에 참여했던 귀환노동자는 '네팔이 변화하려면 경제개혁보다 나태, 무지, 불신과 같은 것이 척결되는 정신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네팔사람들의 무질서와 게으름, 부정직을 질타했다. S 역시 네팔사람에게 산업사회가 갖는 시간 약속과 약속에 대한 책임, 부지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이크로 크레딧 회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었다.

에커타는 한국 NGO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창업지원금 이자율을 5%로 책정했다.

에커타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16% 이율로 인해 가난한 여성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한국 NGO 단체의 제안으로 특별 대출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NGO는 신용협동조합 이율 12%보다 더 높은 16% 이율을 마이크로 크레디트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 다국적 국제기구인 IMF, 세계은행, 영리조직 (Gitigroup, HBSC), 비영리조직(FINXA, ACCION)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업무를 시작했고, 2006년 3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식 매각으로 얻은 자금 1억 6천만 달러를 13~15%의 이자율로 빈민에게 대출하는 65개 마이크로 금융기관에 배분하는 등 월스트리트는 마이크로 금융의 채권자가 되고 있다(Xanthine Basne 1994, 23). 담보 대출 없이 연대보증을 세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협력함으로 자립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시민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빈민을 시장경제의 소비자로 만들며, 금융기관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때문이다(김성현 2013, 14).

하지만 에커타는 상업은행, NGO 은행, 개발은행의 이율 17~18%에 비하면 낮은 편이며, 매일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12% 정도라고 설명한다. 만일 금리가 낮을 경우,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네팔 현실에 적합한 금리라고 강조한다. 금리는 협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며 마이크로 크레디트 여성들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총회를 통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이율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 NGO 단체와 에커타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 NGO가 여성의 자립에 중점을 둔다면, 에커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NGO의 최우선 과제가 여성의 취·창업이라면 에커타는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이다. 한국 NGO는 ‘기다림을 통한 역량 강화’를, 에커타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역량 강화’를 주장한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자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주로 다루는 앵거스 디턴(Angus Stewart Deaton 2014, 326)은 원조를 이유로 여러 조건을 걸어서 오히려 원조받는 쪽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원조가 오히려 더 해를 끼칠 때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조 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기부자가 아니라 그 수혜국 지역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거스 디턴의 견해는 두 기관의 갈등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3. 원조를 넘어 협동조합 운동으로

네팔에서는 국제원조가 빈곤을 완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부패가 확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많은 기부자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손을 잡고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기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네팔의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낸 Devendra Raj Panday의 평가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해외 NGO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NGO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NGO 일을 인정받지 못해요. 외국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게 개인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 지원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요. 이런 생각은 마오주의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나도 NGO 일을 하고, 다른 NGO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런 차를 사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많이 있었어요. 로컬 NGO들은 좀 괜찮은데 국제 NGO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 5년간 아동교육 NGO 활동을 한 귀환이주노동자 B, 2009년 인터뷰.

한국의 한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빈곤 지역 어린이를 위한 학교와 장학 사업을 5년간 진행한 현지 귀환노동자의 증언이다. 해외 NGO의 무료 교육, 무료 지원금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향후 사업을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NGO와 협력하고 있는 현지 단체를 NGO 브로커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국제 NGO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존성을 키워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네팔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한국의 한 불교 단체가 설립한 ‘비하니바스티’라는 사회복지기관은 문해 교육, 의료지원,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했는데 한국인 대표가 한국인들 후원자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품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는 등의 홍보성 활동을 벌인 이후 주민들은 참여보다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처음 계획했던 주민 조직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한다.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NGO는 해외 NGO의 지원이 중단되면 동시에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 한국의 불교 단체가 후원한 ‘비하니바스티’ 사회복지기관과 현지 활동가와의 갈등으로 한국에서의 후원이 끊기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커다란 건물만 쓸렁하게 남았다. 현지 NGO가 얼마나 조직력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이끌어 갈 역량이 있느냐는 협력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지 NGO 역시 파트너십을 갖는 해외 NGO가 일회성의 과시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느냐도 주된 고려사항이다.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해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드맵 같은 틀이었어요. 한국에서 지원이 끊겨도 우리가 스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해요.” -S, 2020년 인터뷰.

에커타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봉제 교육 이후 봉제공장 협동조합을, 제과 제빵 교육 이후에는 디디(네팔어로 언이라는 뜻) 빵 공장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한국 NGO 센터의 지원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베이커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치즈케이크, 초코케이크, 도넛, 머핀, 화이트 케이크 등의 한국의 여느 빵집과 다르지 않은 메뉴를 선보이며 로컬에서 판매되는 빵보다 맛과 품질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다. 가격도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200여 슈퍼마켓에 빵을 납품하고 있다.

에커타 생산협동조합은 코로나 19 이후 더욱 바빠졌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도 네팔을 강타했다. 무엇보다 2020년 3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4개월간 전국 봉쇄령이 발효되어 인도와 연결된 육상 경계선과 모든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모든 학교는 휴교하였으며 식료품 가게를 제외한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 세계은행은 관광 산업의 마비와 중국산 원자재 부족, 해외 노동허가 발급이 중단됨으로 인한 해외 송금의 급감으로 네팔 인구의 약 3분의 1이 국제 빈곤선(1.9달러 이하)으로 떨어져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났고, 식량을 지원받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임금노동자, 소상공업자, 관광 종사자 등 전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노인, 미혼모, 고아,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계층들이 더 취약해졌다. 제과 제빵 교육 과정도 중단되고 카페도 문을 열 수 없어서 적자가 누적됐다. 네팔의 가장 큰 축제인 더 사인(Dashain) 축제에 맞추어 제작할 옷들은 큰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문도 끊겼다. 네팔의 경제 상황만큼 협동조합도 위기를 맞는 듯했다. 하지만 에커타는 긴급하게 방향을 선회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봉제공장을 완전가동하여 마스크를 제작하고 빵 공장에서도 빵을 생산하여 노숙자들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배급했다. 빵과 음료수, 마스크를 한 묶음으로 긴급 구호 식품을 보급하면서 협동조합은 더 많은 생산에 들어갔다. 점심 바꾸니 세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 NGO의 발 빠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현재 봉제 협동조합에는 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제과점에 10명, 신용협동조합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에커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40명이다. 사무국장 S는 ‘적어도 40명은 이주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 S가 ‘이주노동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그토록 꿈꾸는 이유는 아무리 법과 제도를 보완해도 국민국가의 경계가 더욱 공고해지며 타자에 대한 배제와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한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란 존엄성을 갖지 못한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목적 협동조합의 다음 목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자신의 땅에서 땀 흘리며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의 꿈이자 이주노동에 내몰린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꿈일 것이다.

Ⅵ. 맺는 글

한국을 떠날 때 모든 삶이 뿌리 뽑힌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귀환 이주노동자 S는 귀환 후 노동조합 운동, 신용협동조합, 다목적 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했다. 20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청년은 억압적 노동 현실을 보고 노동운동가로서 투쟁하며 지냈으며, 귀환 후에는 한국에서 형성한 노동자라는 정체성의 연장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조직화 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보다 이주노동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주노동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재(再)이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 즉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이 혼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여럿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거기에 한국 NGO 단체가 ‘우리’에 힘을 보태 ‘더 큰 우리’를 만들었다. 노동조합 운동과 농성을 통해 그가 보여준 헌신성과 책임감, 동지들에 대한 이타성은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을 형성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귀환 후 한국 NGO에 의해 경제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커타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며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두고 하나하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제정 당시 이주노동자 상담소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고용허가제 제정을 촉구하고 있을 때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기만’이라며 단 세 명이 87일 동안 고용허가제

제정 반대 농성을 할 정도로 급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그가 귀환 후 바라본 네팔 사회는 거대한 구호나 이념적 원칙보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운동이자 투쟁이었다. 그에게 최대 관건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이다. 여성의 권리나 소수민족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만 취급되는 동료 시민들의 이주노동을 막는 것이 네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책무이며 네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창립 15년을 맞는 에커타의 갈 길은 멀다. 민간 금융자본이 밀려왔을 때 신용협동조합의 생존 가능성 유무와 중국과 인도의 값싼 물품에 봉제공장이 얼마나 재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도 시험대 위에 올랐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은 또 어떻게 쌓아 올릴지도 미지수다. 한국과 네팔이란 세계를 짚어낸 다중적 존재로 네팔 사회에 놓인 과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확장해나가며 삶 불만의 특이성⁹⁾을 사회화해 나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이제 이주 정책과 연구는 한국이라는 목적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귀환 이후의 전 과정이 포함되는 연속성의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도구이자 소모품인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공론의 장에 참여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주자는 자신의 경험한 세계를 바탕으로 구조적 모순과 부정의에 대항하는 적극적 행위자이며 인정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국적 운동을 확장해 가는 주체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의 시민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 초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9) 네그리(2008, 174)는 이주민을 서로 다른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가진 복합적이고 다양한 혼성적 존재이며,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중적 존재로 정치적 사회 불만을 확장해나가는 확장자이자, 삶 불만의 특이성을 사회화하는 주체라고 설명한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오기 전 학생, 교사, 은행원,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네팔 이주활동가들은 브라만과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다양한 신분 계급과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권리 없는 노동자’라는 특이성을 사회화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라는 다중의 영역을 확장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 강승희. 2011.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 운동, 어떻게 되었나. 협동조합연구소 53, 56-62.
- 고광명. 2010. 제일(在日) 제주인의 제주도예의 기증과 투자 활동. 한국일본근대연구 27, 217-242.
- 구정옥. 2020. 독일과 미국의 금융협동조합네트워크 비교연구. 상업교육연구 34(2), 97-124.
- 김경학·신지원·이기연·신난딩·박경환. 2020. 이주국가의 부상. 한국사진지리학회 30(1), 73-97.
- 김성현. 2013. 국제금융기구와 빈곤축소 프로그램. 경제와 사회 80, 275-314.
- 김정선a. 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29(2), 61-105.
- ____ b. 2015. 아시아 지역 이주-발전 정책/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네팔귀환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5, 127-166.
- 김주희. 2020.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현실문화.
- 무하마드 유누스. 정재곤 옮김. 2008.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그라민 뱅크 설립자 무하마드유누스 총재 자서전. 세상사람들의 책.
- 박정석. 2015.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디아스포라연구 9(2), 9-119.
-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2013. 일조각.
- 이용일. 2009. '트랜스내셔널 전환'과 새로운 역사적 이민연구. 서양사론 103, 315-342.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조정환·정남현·서창현 옮김. 2008. 다중. 세종서적.
- 양혜우. 2011. 귀환 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 2015. 베트남 이주노동자 귀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고, 현대사회와 다문화 5(1), 88-115.
- 유석춘.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 채수홍.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 교류.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 13(2), 5-39.

- 한건수. 2004.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아프리카학회지 21, 213-239.
- Aryal, N., Regmi, P., Faller, E., Teijlingen, E., Khoon, C., Pereira, A., and Simkhada. Sudden cardiac Death and kidney health related problems among Nepali migrant workers in Malaysia. *Nepal Journal of Epidemiology* 9(3), 788-791.
- Basch, Linda, Nina Glick-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Routledge.
- Bhup KC and Anita KC. 2018. The Role of Saving and Credit Co-operatives in Rural Women Empowerment in Dang, Nepal. *Journal of Development innovation* 2, 26-33.
- Devendra Raj Panday, Jude Comfort. 2016. *NGOs, Foreign Aid, and Development in Nepal*. Edward Broughton University Research.
- Glick Schiller, Nina, Basch, Linda, Blanc, Cristina Szanton.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Hertzog, Esther. 2009. Who needs literacy programs for women in rural Nepal?. *Hagar; Beer-Sheva* 9(1), 43-72.
- Levitt, Peggy,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Mansour, Esmaeil Zaei; Kapil, Prachi; Pelekh, Olha. 2018. Does Micro-Credit Empower Women through Self-Help Groups? Evidence from Punjab, Northern India. *Societies Basel* 8(3), 1-15.
- Robert C. Smith. 1998. Transnational Localities: Community, Technology and Politics of Membership within the Context of Mexico and U.S. Migration. *Transnationalism from Below* 6, 196-238.
- Xanthine Basnet. 2016. *Microcredit programs and their challenges in Nepal*. Salem college Winston-Salem, NC.

- 네팔 노동조합 총연맹 GEFONT. 출처: <https://www.gefont.org/GG2303390.html> (검색일: 2020. 10. 24.).
- 네팔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출처: <http://nefscun.org.np/about-us/about-nefscun/> (검색일: 2020. 10. 26.).
- 네팔포스트. 출처: <https://tkpo.st/35to3kn> (검색일: 2020. 11. 12.).
- 에커타(Ekata) 협동조합. 출처: <https://ekatacoop.org/> (검색일: 2020. 09. 15.).
- ICIMOD. 출처: <https://www.icimod.org/building-social-capital-through-the-migrant-returnee-network/> (검색일: 2020. 10. 25.).
- IOM. 출처: https://migrationdataportal.org/?i=stock_abs_&t=2019 (검색일: 2020. 09. 28.).
- Nepal Migration Report, 2020. 출처: <https://moless.gov.np/wp-content/uploads/2020/03/Migration-Report-2020-English.pdf> (검색일: 2020. 09. 25.).

● 투고일: 2020.12.28. ● 심사일: 2020.12.30. ● 게재확정일: 2021.01.26.

| Abstract |

**Dream of a Returnee Migrant worker ‘Dreaming the
Community without Migration’
- Case Study of Ekata (Multi-Cooperation in Nepal)**

Yang Haewoo (Kyung Hee University)

Early 1990s, migrant workers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migrant workers based on Korean civil organizations have formed communities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themselves. Returnee migrant worker S was one of worker who involved in various social movements at that time. He was including being the head of the migrant workers Trade Union as well as one of the leaders of the protest against the ‘Stop Crack Down’ in Myeongdong Cathedral in 2003. Through S’ case I specifically reviewed how social capital formed by the return of migrant workers and the migration is maintained and reproduced. This study will show that migration is a process of life being organically connected and expanded rather than being a linear or chronological process, and that the identity formed in Korea as a migrant worker will be represented as a worker in their own country after they return and furthermore shown in the expression of multitude identities rooted in their local community. The importance of studies focusing on the lives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after they have returned to their own country should be recognized due to their contribution towards developing fairer migration policies in Korea as well as towards protecting the rights of these workers.

〈Key words〉 Nepa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union, returnee migrant workers, communities, NGOs